



마음의 중심에서 이탈이 되면 안 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주인공 관(觀)하는 법을 듣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을 믿고 계속 관을 하다 보니 몸이 물론 몸에 병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예를 저로서는 수차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서 제 마음 상태가 항상 욕심을 내는지, 화를 내는지,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지,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내고 있는지를 거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경계이기 때문에 이 미혹한 경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밝은 쪽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 상태를 밝은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나쁜 사탄 길로 가지 않게 올바르게 끌고 가는 것이 주인공을 관해서 견성하여 올바르게 가는 수행법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내가 끊어지지 않게 잘 놔야지.' 하는 것까지도 거기 놔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로 믿는다면, 이걸 놓는다 안 놓는다, 뭐 안되는 것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도 불지 않습니다. 24시간 생각이 안 났어도 끊어진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한 달 후에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삼천 년 전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탄지탄 끊어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거를 붙들고 극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극매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제자리에다 돌려놓는 공부, 또는 제자리에다 놓되 앉으나 서나 생각나면은 거기가 돌려놓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안되면은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지.' 하고 거기가 돌려놓는 법, 또는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나를 발견하고 나서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때부터 공부기 때문입니다.

둘 아닌 도리를 공부하려면 이것 저것이 전부 나타납니다. 말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온통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하는 그 경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끔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를 테스트해보려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나 그걸 보느라고 그렇게 나오고, 보이고 '나는 아무개다.' 하고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 거를 속아서 안 됩니다. 그것마저도 제자리에다가 다시 돌려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질문자2(남): 먼저 삼보님 전에 지성으로 귀의하옵고 시방제불 보살마하살님들과 대행 큰스님과 인연이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찾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쪽 생활 속에서 행주좌와 중에 24시간 무심의 생활을 하려고 하고 마음을 관하고 놓고 무심, 관하고 놓고 무심, 이런 식으로 한 2년, 3년을 계속하다 보

니까 지금 어느 정도 반야심경이 5년째 되던 작년에 탁 터지는 한 소식, 한 소식을 하면서 터진 다음에 대행 큰스님의 죽비 소리에 홀연히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처에 부처님 나투심 아닌 곳이 없고 이곳이 불국토고 제 있는 곳이 도량아구나.' 하는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그냥 항상 무심의 생활 속에서 인제, 염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쪽 찾아온 것이, 제가 그 소를 찾아 마음을 찾아보니까 소 자체도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잔등에 타가지고 소를 부리면서 제가 처처에 나투신 부처님들과 함께 시방세계를 놀다가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들어지고 일체 삼라만상이 유심조(唯心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노애락 모든 슬픔, 기쁨, 고통과 모든 것에 한생각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일으킨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 대상과 경계가 실체가 있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큰스님의 그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불이관(不二觀)에 의해서 하다가 큰스님 죽비 소리에 홀연히 뭔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기가 물에 벗어나서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노닐 수 있지만 그 물 자체에서는 벗어나갈 수가 없듯이, 우리가 불법이라는 부처님 손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불법에조차도 걸리지 않는, 고기가 물속조차도 넘어선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색(色) 공(空)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중도(中道)의 길을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인지, 큰스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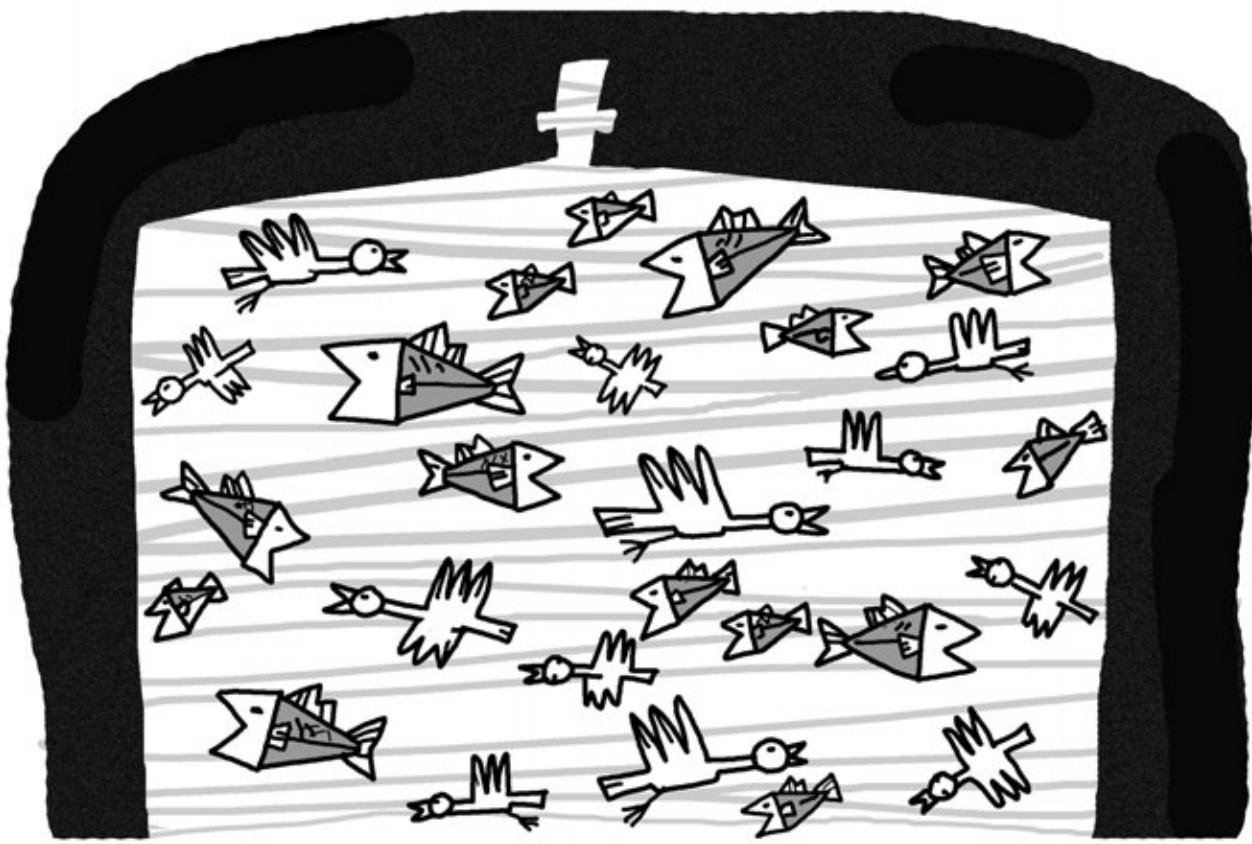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두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깨침에도 초지(初地)에서 십지(十地)까지 십 단계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야심경에 보편은 반야바라밀다라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배 자체도 버려라 하고 강을 건너기까지만 가르쳐주시고 있고 강을 건너고 나서 가야 할 길도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떠한 수행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가야 할지 큰스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다 터진 것처럼 말하면서, 하하하. 우리가 아까 말한 거나 지금 말씀한 거나 같습니다. 같은데 이 선법에는 물도 없고 배도 없고, 청산도 없고 뚝대도 없습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더 가고 달함도 없는 색(色) 공(空)이, 색 공이 둘이 아닌 까닭을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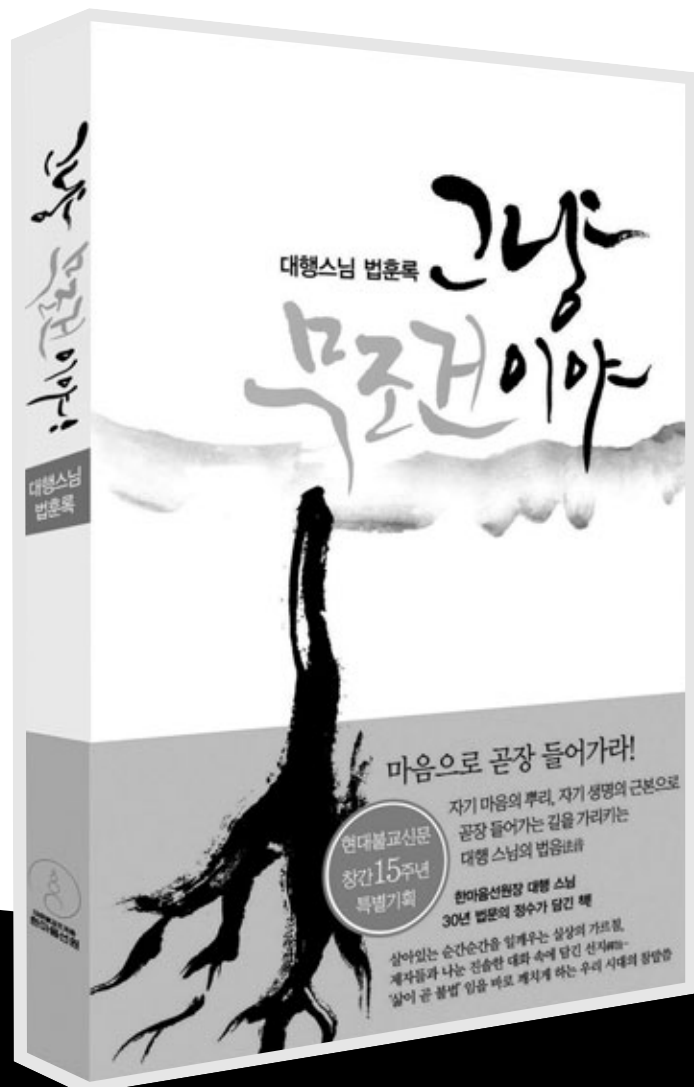
질문자2(남): 예.
큰스님: 그럼 내보시죠. 귀신 방귀씨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까닭은 아십니까? 우리는 느끼는 걸로만 알아서 안 되고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법은 실천이 문제입니다. 또 귀신 방귀털을 더 먹이지도 않고 덜 먹이지도 않고 그렇게 기르는 까닭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세 가지, 이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거를 안간힘을 쓰고 할 양으로 무심(無心) 무심 무심 무심 하시는데 그 무심조차 놔야 되죠. 이거를 굴리면서 이거를 무심 무심, 이걸 무심으로 살아야지, 무심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무심으로 살지 않는 게 됩니다. 그 모두 일체를 다 놓고 제자리에다 놓고 그 제자리에다 놓는 데서 그것이 다 놓아서 그릇이 홀랑 빈 연에 자기라는 것이 홀연히 고개를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둘이 아닌 도리를 가르치려면 그 귀신 방귀털을 더 먹이지도 않고 덜 먹이지도 않게 그렇게 먹여서 키우는 것이 둘 아닌 도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두 번째는 둘이 아닌 까닭을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세 번째는 둘이 아닌 나뭇을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발견이 됐으면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어린애 낳았다고 그래서 사회에 그냥 내보내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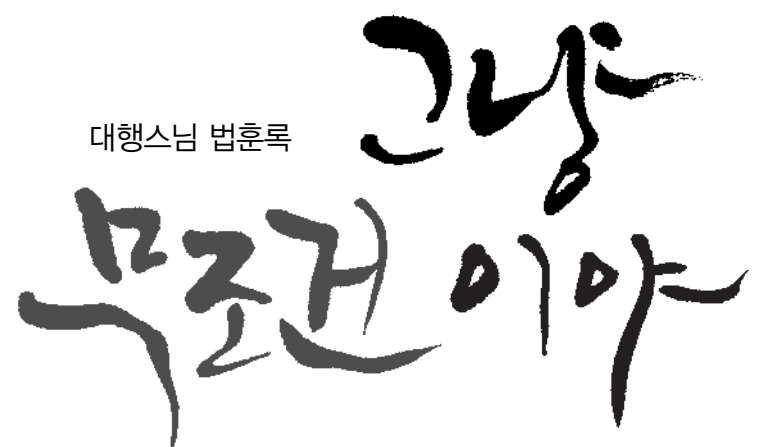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쪽 / 값 11,000원